

# 1강

- 신을 빌미로 한 인간 이야기, 본풀이
- 인간 세상이 이렇게 생긴 내력, 천지왕본풀이

# 신을 빌미로 한 인간 이야기, 본풀이

강정식(제주학연구소 소장)

## 1. 본풀이의 개념과 위상

본풀이는 신의 ‘근본 내력 풀이’이다. ‘본(本)’과 ‘풀이’를 합친 말이다. 본풀이는 주인공의 출생부터 신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을 풀이한다. 그런데 주인공의 삶은 대체로 인간의 삶과 다르지 않다. 본풀이는 신을 빌미로 삼아 인간의 이야기를 풀어내곤 한다.

본풀이는 신을 기쁘게 하는 이야기이다. 인간이 기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먼저 신을 기쁘게 한다. 본풀이는 심방이 굿판에서 신을 대상으로 하여 풀어내는 이야기이다. 굿판에서 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풀어내지 않는 이야기이다. 본풀이는 신의 내력을 풀이함으로써 신을 기쁘게 한다. 신은 자신의 내력이 펼쳐지는 것을 즐긴다. 흔히 “귀신은 본을 풀면 신나락 만나락 한다.”고 한다.

본풀이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이다. 본풀이는 이야기인 만큼 그 자체로 재미가 있다. 전통사회에서 가장 인기있는 즐길거리였다. 요즘의 연속극에 상응하는 위치에 있었다. 사람들은 본풀이를 듣기 위하여 굿판을 찾기도 하였다. 주요 본풀이는 이야기를 순조롭게 전달하기 위하여 조용히 구연한다. 심방은 스스로 장구를 치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더러 요령을 흔들면서 풀기도 하고, 소미들의 북과 장구 반주를 곁들이면서 풀기도 한다.

본풀이는 신을 기쁘게 한다는 빌미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인 셈이다. 본풀이가 이야기인 만큼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판에서도 회자되곤 한다. 곧 옛날 이야기 레퍼토리에 포함되기도 한다는 말이다. 그만큼 본풀이가 재미있는 이야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판에서는 본풀이의 내용 주요 대목을 간추린 것일 뿐이다. 일반 사람이야 본풀이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본풀이 전체를 풀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심방은 다르다.

본풀이는 의례의 일부이며 전승의 주체는 심방이다. 특정한 순서에서는 반드시 본풀이를 구연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본풀이는 오랫동안 전승될 수 있었다. 심방은 사제자이면서 이야기꾼이기도 하다. 사제자이니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굿을 진행해야 한다. 그 절차에는 본풀이가 포함된다. 심방은 굿판에서 거듭 본풀이를 구연하면서 전문적인 이야기꾼으로 성장한다. 본풀이 가운데는 2시간 이상 풀어야 하는 장편도 있다. 일반인의 이야기판에서 이처럼 긴 이야기가 유통되는 일은 없다.

본풀이는 신을 빌미로 삼아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다. 본풀이는 의례의 일부이고 사제자인 심방에 의하여 전승되는 이야기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의 이야기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을 빌미로 삼아 인간의 이야기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사람들이 본풀이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본풀이는 무속신화 혹은 서사무가라는 용어를 이미 대체하였다. 이는 제주도 본풀이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풀이는 우리 문학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본풀이는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 이른 시기부터 형성되고 유통되었다. 본풀이는 전문적인 작가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만들어지고 유통되던 이야기이다. 후대의 문학사는 앞선 시기 본풀이의 영향을 두루 입었다.

본풀이는 ‘살아있는 신화’이다. 지금도 굿 현장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연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아있는 신화’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본토의 경우만 해도 우리 제주도와는 사정이 다르다. 신화를 거론할 때 제주도 본풀이를 반드시 언급해야 마땅하다.

## 2. 본풀이의 유형

제주도 본풀이에는 여러 유형,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를 본토의 경우와 견줄 때 제주도만의 유별남을 확인할 수 있다.

본풀이에는 조상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일반신본풀이, 특수본풀이 네 유형이

있다. 특수본풀이를 제외하고는 주인공의 위치에 있는 신의 성격과 관련 신앙의 범위에 따라 정리해본 결과이다.

조상신본풀이는 가문의 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이면서 가문을 중심으로 전승된다. 당신본풀이는 마을 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이면서 마을 단위로 전승된다. 일반신본풀이는 가문과 마을을 넘어서는 일반의 신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제주도 어디에서나 전승된다. 특수본풀이는 전승 단절된 본풀이 몇 편에 대한 편의상의 명칭이다.

조상신은 특정 가문의 재복을 지켜주는 신이다. 비혈연 조상도 있고 혈연 조상도 있다. 조상신은 제사나 명절에도 제향되곤 한다. 조상신앙도 전승의 범위를 넓혀가기도 한다. 본래 남의 조상을 끌어다 자신의 조상으로 모시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다. 당신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주신은 본향신, 보조신은 일뿔중저·으드렛도, 개당하르방·개당할망, 산신 등이다. 이들은 본향신과 산육·치병신, 생업신의 조합으로 하나의 신앙권을 이룬다. 이웃 마을과 교류를 하다 보니 당신앙도 여러 모로 공유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따라 당신본풀이도 유사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일반신은 주요 인간사를 담당하는 신이다. 생사, 생업, 질병 등 주요 인간사에는 신들의 손길이 미치지 마련이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본풀이 목록에도 들고 남이 있었다. 심방들은 필요에 따라 대응해 왔다. 일반신본풀이는 여러 유형 가운데 흥미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는 사례이다.

본풀이는 유형에 따라 구연기회가 달리 마련된다. 조상신은 신앙의 주체가 일가(一家) 혹은 가문(家門)이다. 조상신본풀이는 그 조상을 모시는 기주의 곳일 경우 반드시 구연된다. 그 집안을 벗어나서는 구연될 까닭이 없다. 당신은 신앙의 주체가 마을공동체만일 수도 있고 생업공동체일 수도 있다. 당신본풀이는 당곳을 할 때 반드시 구연된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갓집 곳에서도 반드시 구연된다. 다른 마을 사람의 곳에서는 구연될 까닭이 없다. 일반신은 신앙의 주체가 제주도 사람 모두이다. 일반신본풀이는 사갓집 곳에서 두루 구연된다. 조상신이 있건 없건, 사는 곳이 어느 마을이건 상관 없이 구연된다. 경우에 따라 생업공동체의 곳에서 구연되는 것들도 있다.

유형	조상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일반신본풀이
범위	일가	마을, 생업공동체	일반
의례	사갓집굿	당굿, 사갓집굿	생업공동체굿, 사갓집굿

조상신은 반드시 제향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조상신본풀이는 그 존재가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조상신이 특정한 집안에서만 모셔지기에 그 본풀이를 아는 이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조상신이 특정한 집안에서만 제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이야기 자체에서도 제향의 주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중시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향의 대상과 제향의 주체가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본풀이 속에 제향의 대상인 신과 제향의 주체인 사람이 함께 등장하여 서로 만나고 일정한 행위를 함께 한다.

당신도 반드시 제향을 해줄 마을이 필요하다. 특정한 마을을 찾아가서 그 마을의 대표들로부터 제향을 약속받는 것으로 당신의 좌정처 탐색이 완료된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흥협을 주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제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일부 자료에서는 마을 대표가 아니라 특정한 성씨의 조상인 개인 혹은 특정한 심방을 안내자로 삼고 그들로부터 제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신본풀이가 조상신본풀이에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단골이 개인으로 제시된 것은 조상신본풀이의 면모가 남은 것이고, 단골이 마을 대표로 제시된 것은 완전히 당신본풀이의 면모를 갖춘 것이라고 해도 좋겠다.

일반신은 굳이 누구로부터 제향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할 필요가 없다.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의 집에서 굿을 하더라도 두루 제향이 되는 신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신본풀이에는 오로지 신앙의 대상인 신만 등장한다. 신앙의 주체인 인간이 의미있는 존재로 등장하는 사례가 드물다.

유형	조상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일반신본풀이
등장인물	조상신, 단골 개인	당신, 단골 대표	신

본풀이의 쓰임새가 잘 드러나는 의례는 사갓집의 큰굿이다. 큰굿에서는 절차에 따라 조상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일반신본풀이를 구연한다. 해당 집안의 조상신본풀이와 해당 마을의 당신본풀이를 구연할 뿐 아니라 일반신본풀이를 두루 구연한다. 특히 조용한 밤 시간에 인기 있는 본풀이를 구연하곤 한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본풀이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곤 하였다. 요즘에는 그 인기를 TV에 내주었다. 본풀이의 전승에 가장 큰 장애는 TV이다.

일만 팔천 신에 대한 본풀이가 두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요한 일과 관련한 신들의 본풀이만 존재한다. 참고로 ‘일만 팔천’은 많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일 뿐이다. 실제 신의 수는 이보다 훨씬 적거나 많다. 이는 축구 선수 가운데 포지션상 골키퍼라고 불리는 선수는 하나지만, 지구상에는 수많은 골키퍼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

### 3. 일반신본풀이의 종류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게 될 테니 이번에는 일반신본풀이에 집중해 보기로 하자.

일반신본풀이로는 10여 가지가 있다. 널리 알려진 것은 천지왕본풀이, 할망본풀이(삼승할망본풀이, 구삼승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차사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 칠성본풀이, 사만이본풀이(멩감본풀이), 지장본풀이, 영감본풀이이다. 이들을 아울러 흔히 ‘열두본풀이’라고 한다. 하지만 반드시 열두 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열둘’은 그저 ‘차고 넘침’을 의미하는 수일 뿐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고, 반드시 열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실제로 삼승할망

본풀이, 구삼승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는 하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다.

일반신본풀이는 그 대부분이 본토와 함께 전승하는 이야기를 근간으로 한다. 이로 보아 과거에는 본토에도 다양한 본풀이가 전승되고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은 크게 다르다. 본토에는 일반신본풀이에 해당하는 것이 몇 편에 불과하다. 당금애기, 바리데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토에서 전승하던 것이나 전승 중인 것은 대개 제주도에서도 전승되지만 바리데기만은 제주도에서 전승되지 않는다. 이 점은 제주도 본풀이 관련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본토에는 조상신본풀이나 당신본풀이에 해당하는 전승이 매우 드물다. 전반적인 전승 양상이 제주도와 다른 셈이다.

핵심적인 본풀이로는 초공·이공·삼공의 본풀이를 든다. 초공은 신불휘, 이공은 꽃불휘, 삼공은 노불휘라고 한다. 이때 ‘불휘’는 뿌리이니, 근본 가운데 근본에 해당하는 셈이다. 제주도 무속 사회에서는 이 셋을 통하여 의례의 규범을 마련하고 곳을 확장해왔다.

# 인간 세상이 이렇게 생긴 내력, 천지왕본풀이

강정식(제주학연구소 소장)

## 1.

본풀이는 신의 내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다. 본풀이의 모든 설정은 인간 세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계관과 가치관, 인간관이 본풀이에 반영되곤 한다. 이러한 사정은 천지왕본풀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천지왕본풀이는 신을 빌미로 하여 인간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는 인간 세상이 이루어진 내력을 말한다. 아울러 인간세상의 무질서에 대한 원죄(原罪)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는 세계 여러 곳에서 전승된다. 본토에서 곳곳에서도 같은 계통의 이야기가 전승된다. 이들 이야기는 신의 이야기이기만 하다면 다를 수 없지만,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다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천지왕본풀이는 인간 세상이 이루어지는 내력을 말하는 본풀이인 만큼 곳판에서 가장 먼저 구연된다.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초감제의 베포도업침에서 풀이된다. 바로 이 베포도업침에서 해와 달이 생긴 내력을 언급할 때 천지왕본풀이가 구연된다. 흔히 창세신화(創世神話)라고 하지만, 본풀이자체만으로는 창세에 관한 내용이 뚜렷하지 않다.

## 2.

이야기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존재는 천지왕과 총맹부인, 천지왕과 수명장자, 대별왕·소별왕이다. 핵심적인 구실을 하는 존재는 천지왕·총맹부인, 대별왕·소별왕 2대이다.

- (1) 수명장자의 악행(불효, 가난한 이들 이용한 致富) \*일월로 인한 인간 세상의 문제.
- (2) 수명장자 징치를 위한 천지왕의 하강 \*일월 문제 해결을 위한 하강.
- (3) 천지왕과 총맹부인의 결연 \*일월 문제 해결 시도.
- (4) 수명장자 징치 \*부수적인 문제 해결.
- (5) 천지왕과 총맹부인의 이별
- (6) 대별왕 · 소별왕의 탄생
- (7) 대별왕 · 소별왕의 성장과 고난
- (8) 대별왕 · 소별왕의 부친 탐색
- (9) 대별왕 · 소별왕의 일월 조정 \*일월 문제 해결.
- (10) 대별왕 · 소별왕의 이승 차지 경쟁
- (11) 소별왕의 부정으로 인한 인간세상의 무질서 \*그래도 남은 문제.

모든 이야기를 이끄는 동력은 ‘문제 - 해결’, ‘고난 - 극복’, ‘결핍 - 충족’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천지왕본풀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천지왕이나 대별왕 · 소별왕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늘 옥황의 천지왕이 지상으로 내려간다. 천지왕이 지상으로 내려가는 까닭은 전승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수명장자를 징벌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해 둘, 달 둘로 인한 인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맥락을 고려할 때는 뒤의 이유가 적절한 설정이다. 앞서 베포도업침을 통해 우주와 인간 세상이 만들어진 내력이 제시되었다. 이때 그 과정의 문제로 해와 달이 들쭉 떠서 인간이 살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따라 일월(日月)을 조정하는 일이 급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것이 바로 천지왕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명장자 징치는 부수적인 요소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sup>1)</sup>

지상으로 내려간 천지왕은 총맹부인과 결연한다. 결연 과정에 수명장자의 악행을 알게 된다. 가난한 총맹부인이 천지왕을 대접하기 위하여 수명장자에게 쌀을 꾸어다가 밥을 지었는데, 밥에서 모래가 씹히는 바람에 수명장자가

1) 앞서 우주와 인간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자연현상으로만 제시된 것이다. 여기에 신의 개입은 없었다. 일월조정부터 신이 개입하는 셈이다. 천지왕본풀이는 이미 인간 세상이 이루어진 뒤에 남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빌려주면서 모래를 섞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화가 난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벌한다. 수명장자의 악행을 징벌하기 위해서 천지왕이 하강하는 것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수명장자의 악행도 달리 설정된다. 수명장자는 부친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불효를 저지른다. 생전에 부친에게 매 끼니를 대접한 대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수명장자의 악행이 가난한 자에 대한 횡포와 부모에 대한 불효로 달리 설정된 셈이다. 뒤의 경우 수명장자의 악행을 내세우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sup>1)</sup>

천지왕은 총맹부인에게 잉태를 시키고 하늘로 올라간다. 떠나기에 앞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꼭씨와 증표를 남긴다. 이러한 천지왕의 모습은 우리 신화에서 흔히 보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구려 건국신화의 해모수를 들 수 있다. 주몽이 홀어머니 밑에서 온갖 고난을 겪는 것처럼 이야기 속의 영웅은 어려서부터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존재로 설정되기 마련이다. 한편 천지왕이 직접적으로 일월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둘 필요가 있다.

총맹부인은 대별왕·소별왕 형제를 홀로 낳아 기른다. 대별왕·소별왕이 자라 아버지를 찾자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준다. 자라는 과정에서 이들의 영특함이 두드러진다거나 활을 잘 쏜다거나 하는 설정이 덧붙는 것은 자연스럽다. 유화 부인과 유리의 내력을 떠올리게 되는 대목이다.

대별왕·소별왕은 아버지를 찾아 하늘로 간다. 천지왕이 총맹부인에게 남긴 꼭씨를 심고 줄기가 하늘로 번져 그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대별왕·소별왕은 일월조정을 한다. 천지왕과 두 아들은 부자 상봉을 하고 친자 확인을 거친다. 천지왕은 비로소 지상으로 내려갔던 목적을 본격적으로 이루려고 한다. 아들들에게 일월조정의 임무를 맡긴다. 대별왕·소별왕은 합심하여 해 하나 달 하나를 활로 쏘아 떨어뜨린다. 이로써 인간 세상은 비로소 사람이 살 만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대별왕·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툰다. 천지왕은 대별왕에게 이승법, 소별왕에게 저승법을 차지하라고 한다. 그러나 소별왕이 이승법에 욕심을 낸다. 그래서 내기를 제안한다. 수수께끼 내기에 이어 꽃가꾸기

---

1) 그런데 수명장자의 악행을 징치하기 위하여 지상에 이르렀다는 설정은 천지왕본풀이에서 비로소 마련된 것은 아니다. 같은 계통에 속하는 전승인 경기도 「시루말」에도 지상의 죄인을 징벌하기 위하여 하강한다고 하였다. 가구 적간(家口摘奸).

내기를 하는 도중 내기에 지게 되자 잠자기 내기를 제안하고 몰래 꽃을 바꾸어 놓는다. 그 결과 대별왕은 저승법, 소별왕은 이승법을 맡게 된다.

소별왕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승은 영원히 무질서한 세상으로 남게 된다. 대별왕은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어지러움을 해결해준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 않고 남긴다. 이 때문에 저승과 달리 인간 세상은 영원히 무질서한 상태가 지속된다. 소별왕이 부정하게 이승법을 차지한 탓이다.

### 3.

천지왕본풀이는 천상적 존재이면서 남성인 천지왕, 지상적 존재이면서 여성인 총명부인의 결합, 그 사이에서 태어난 대별왕·소별왕이 고난을 극복하고 신으로 좌정하는 구도의 이야기이다. 우리 신화에서 흔히 보는 구도이기도 하다. 여기에 해와 달을 조정하는 사정을 담았다. 해와 달이 둘이어서 문제가 되고 이를 해결해야만 하였으며, 문제를 해결하고도 인간 세상이 무질서한 까닭을 말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일월조정과 인간 세상 무질서의 근원이라는 말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주목해 보기 바란다.

#### 1) 원죄(原罪)

원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아담·이브와 대별왕·소별왕은 전혀 다른 설정이다. 천지왕본풀이의 경우 신의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인간세상이 무질서하게 되었다고 한다.

#### 2) 질서, 무질서

해와 달은 질서의 근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와 달의 움직임이 곧 인간 세상의 조건을 결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별왕·소별왕은 질서의 신이라고 할 수 있다. 대별왕·소별왕이 저승법과 이승법을 차지한 신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선후도착(先後倒錯)을 그대로 인정하여 질서화한다. 선후도착이 그르다고 해서 바로 잡지는 않는다. 질서를 말하면서 무질서를 고착화한 셈이다. 달리 보면 다시 질서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빈부 문제

빈부차이를 지닌 남녀의 결연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가난한 자에 대한 공감, 부자의 횡포에 대한 반감이 공존하고 있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빈부의 문제를 다루는 사례는 비교적 흔하다.

### 4) 수직적 세계관, 수평적 세계관

꼭줄 타고 하늘로 오르는 것도 살펴야 할 대목이다. 꼭줄에서 줄보다 꼭에 의미가 있다. 꼭은 박이다. 박은 알 혹은 상자와 같은 의미이다. 건국 신화에서 시조가 되는 존재는 흔히 알 혹은 상자를 통해 출현한다. 천지왕 본풀이에서는 반대로 하늘에 오르는 대목에서 꼭이 쓰였다. 천상에 오른다고 하기 위해 줄이라고 했다. 제주 신화의 수평적 세계관이 본토의 수직적 세계관과 만나 이러한 타협이 이루어졌겠다.

### 5) 전승의 두 가지 맥락

“천지왕이 새 세상(지상)에 내려가 기존 세력인 수명장차를 징치하고 총명부인과 혼인하여 살다가 별거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버지를 찾아 천상에 올라갔다가 책무 부여 받고 귀향하여 좌정한다.”

“해와 달이 들썩이어서 문제가 된다. 천지왕 해와 달 조정할 영웅을 구한다(태몽). 지상에 내려 총명부인과 결연한다. [수명장자 징치한다. 가난한 총명부인의 정성(밥) - 정성에 문제(머흠) - 아들 낳기의 문제 - 해결 시도(수명장자 징치) - 동침, 잉태.] 증표(본메) 두고 하늘로 올라간다. 대별왕, 소별왕 태어난다. 자라 하늘로 천지왕 찾아가 만난다. 대별왕·소별왕 해와 달 조정한다. 이승법과 저승법을 나누어 맡는다.”

